

‘역대 최고 대우’ 이정은·최혜진 베트남서 격돌

KLPGA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김지현·오지현·장은수 등 총출동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8 시즌 두 번째 대회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막을 올린다.

오는 9일부터 사흘간 호찌민의 트윈도브스 골프클럽(파72·6457야드)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에는 지난 시즌 6관왕 이정은(22)과 2018시즌 개막전 우승자 최혜진(19) 등 102명이 출전한다. 우승 상금은 1억4000만원이다.

이 대회는 2018년에 치르는 첫 대회지만 2018시즌 개막전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열린 바 있어 시즌으로 따지면 두 번째 대회다. 하지만 선수들이 동계 훈련을 마친 뒤 열리는 첫 대회라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을 통해 시즌 판도를 전망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방건설과 후원 계약 조인식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있다. /대방건설



작년 12월 베트남 호찌민 트윈도브스GC에서 열린 ‘효성 챔피언십 with SBS’ FR에서 최혜진이 4번홀에서 세컨샷을 하고 있다. /KLPGA

특히 시즌 개막전이었던 효성 챔피언십이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만큼, 당시 우승했던 최혜진이 베트남과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갈지 주목된다.

투어 신인인 최혜진은 효성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신인 최초로 개막전 우승을 차지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이에 맞서는 이정은은 2017시즌 상금, 대상, 평균타수, 다승, 인기상, 베스트 플레이어 등 6관왕에 오르며 투어를 평정했다.

이정은은 이 대회를 통해 2018시즌을 시작한다.

이정은과 최혜진은 지난해와 올해 나란히 후원 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최고 대

우’를 받았던 선수들이다.

최혜진은 지난해 8월 롯데와 후원 계약을 통해 ‘역대 신인 최고 대우’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이정은은 지난 5일 대방건설과 조인식을 통해 ‘역대 최고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 선수의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혜진은 연 6억원, 이정은은 8억원 정도를 받고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은과 최혜진 외에 지난해 3승을 거둔 김지현(27)과 2승을 따낸 오지현(22), 신인상 수상자 장은수(20),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돌아온 장하나(26) 등도 이 대회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KLPGA 투어 2018시즌 국내 첫 대회는 오는 4월 5일 제주도에서 막을 올리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으로 예정돼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올봄 풋풋한 첫사랑 로맨스가 온다

중화TV ‘최호적아문’ 월, 화 편성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나의 소녀시대’의 계보를 잇는 첫사랑 로맨스 드라마가 온다. ‘최호적아문 : 가장 좋았던 우리’(총 24편, 원제: 最好的我們)가 5일 첫방송을 시작으로 월, 화요일 저녁을 책임진다.

‘최호적아문’은 지난 2016년 중국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에서 방영된 웹드라마로, 공부와는 거리가 먼 여고생 경경(탄송윈)과 우등생 위화이(류하오란)의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향수를 자극하는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으로 방영 당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기준 누적 20억 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핫한 스타 중 한 명인 류하오란이 외모, 공부, 운동 등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우등생 위화이로 분해 화제를 모은다. 순수하면서도 첫사랑 역에 잘

어울리는 그의 순수한 매력이 설렘을 극대화하며 국내 시청자들을 흠뻑 빠져들게 만들 전망이다. 또한 그는 현재 중화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망야방2: 풍기장림’에서 소평정 역으로 열연을 펼치며 국내에서도 인지도 높고 있다.

중화TV 임진영 팀장은 “‘최호적아문 : 가장 좋았던 우리’는 특유의 따뜻한 영상미와 풋풋한 첫사랑 스토리로 올봄 시청자들의 설렘을 자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이해하기 쉽고 문장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처음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선진 기자 tree6834@

‘제2의 정해인 찾는다’ 연기자 오디션 개최

FNC엔터, 신인배우 육성 프로그램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가 신인배우 육성 프로그램 ‘2018 FNC PICK UP STAGE : ACTORS(이하 FNC 픽업 스테이지 : 액터스)’를 개최한다.

배우 정진영, 정우, 이동건, 조재운, 박광현, 윤진서, 정해인, 정해성, 성혁, 박두식, 광동연, 정유진, 김연서 등이 소속돼 있는 FNC는 ‘FNC 픽업 스테이지 : 액터스’를 통해 정해인과 정해성의 뒤를 이을 새 얼굴을 찾는다.

‘FNC 픽업 스테이지 : 액터스’는 FNC에서 올해 처음 선보이는 신인 배우 육성 프로그램이다. 1차 서류전형, 2차 실물 오디션, 3차 입원 오디션, 그리고 최종 오디

션 순으로 진행되며 2차 합격자와 3차 합격자는 각각 연기 사전트레이닝과 프로파일 촬영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 전원에게는 전속 혹은 연습생 계약 기회가 부여되며, 최종선발과 동시에 FNC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배우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고점 합격자에 한하여 자사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991년 이후 2006년 이전 출생자 중 배우를 지망하는 대한민국 남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3월 8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FNC 오디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입장권 검색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한번!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3. 9 개회식 19:00~21:50 / 3. 18 폐회식 19:00~21:20

성화채화행사 (정월대보름)
2018. 3. 2. (금) | 고창, 안양, 제주, 청도, 논산

지역축하행사
2018. 3. 4. (일) | 서울 창계광장
2018. 3. 5. (월) | 춘천 춘천역

서울 합화행사
2018. 3. 3. (토) | 잠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2018. 3. 6. (화) | 원주 원주 시청
2018. 3. 7. (수) | 정선 아리랑촌놀이마당

2018. 3. 8. (목)
강릉 임영대중각광장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식 중
‘하늘에 새긴 평화의 꿈’

2018 평창 공식앱
실시간 대회 정보 제공
(국어,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GO 평창
교통 정보 제공

투어강원
강원도 숙박, 관광
음식, 교통 정보 제공

지니톡
29개 언어 번역기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3월 그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입장권 tickets.pyeongchang2018.com/paralympic